

“연극 한번 배워 보실래요?”

‘연극 한번 배워보실래요?’

지역극단에서는 방학 기간 중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극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장기 프로그램은 조금 부담스러워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게 사실.

연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극단 ‘청춘’이 진행하는 ‘오픈 클래스’는 이런 부담을 덜어준다.

한달에 한 차례씩 진행되는 ‘오픈 클래스’는 조금 편하게 시작할 수 행사다. 매회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회 다른 참여해도 되고,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연극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가면서 된다.

‘사람과 연극, 그리고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오픈 클래스’는 매월 둘째주 일요일(오후 3시~6시) 청춘 연습실에서 진행된다.

첫 번째 오픈 클래스가 열렸던 지난 12일 광주 북구 중흥동에 위치한 청춘 연습실은 참가자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클래스에 참여한 10여명은 극단 청춘의 오설균 대표의 지도 아래 자기소개와 함께 발상, 호흡, 신체 훈련 등을 하고 난 후 이날 주제인 ‘모놀로그’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이날 참여한 이들은 광주 지역 교사 연극인 모임인 ‘꿈풀’ 회원들과 일반인들이었다.

이어진 즉흥 연극 시간에는 참가자들에 게 ‘산불’의 점례, ‘늘근 도둑 이야기’ ‘꽃피는 봄이 오면’의 달래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와 줄리엣, ‘맹진사역 경사’ 등 입



극단 ‘청춘’이 진행하는 ‘오픈 클래스’는 매월 한 차례 연극을 배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위저링기자 jrw@kwangju.co.kr

극단 청춘, 일반인 대상 ‘오픈 클래스’

월 1회 독백·대화·마임 등 기초 강연

분 등 등장인물의 독백 부분이 주어졌다.

이어졌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느 쪽이 더 사나이다울까?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받아도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밀려드는 재앙을 힘으로 막아 싸워 없앨 것인가?’(‘햄릿’ 중)

연습 시간은 10분, 참가자들은 몰입하며 열심히 연습에 임했다.

이어 한 사람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자신의 역할을 연기했고, 오설균씨의 품평이

나타나며 그의 평가는 참가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참가자들은 오설균씨의 품평 내용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 하나 새겨나갔다.

이날 ‘산불’의 점례 역을 연기한 문인혜(41)씨는 “제가 참 표현을 잘하고 사는 사람인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사라졌다”며 “연극이라는 게 자신을 표현하는 거라 참 재미있어 앞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5월 10일 열리는 두 번째 시간에는 2인극에 대해 배울 예정이며 즉흥 연기(상상과 표현), 마임(몸짓 표현), 장면연기 등의 주제로 준비돼 있다.

오설균 대표는 “연극에 필요한 요소인 독백, 대화, 마임 등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오픈 클래스를 통해 연극 애호가들이 더욱 연극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 회당 만원. http://cafe.daum.net/cctheater. 문의 062-430-5257.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조현종·박강철씨 문화재 위원 선정

2년 동안 활동



과는 폐지하고, 공예분야와 예능분야

로 분리 운영하던 무형문화재 관련 분

과는 무형문화재 분과로 통합했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에 대한 등재 및 관리, 잠정목록 대상 관리를 전달할 세

계유산분과를 신설함으로써 종전 11개

분과 위원회는 9개 분과로 축소됐다.

문화재청은 또 국보 지정만을 담당

하던 국보지정분과와 문화재 주변 현

상변경 업무를 전담하던 문화재경관분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엄마 영어 독서 지도법 강좌

광주시립사직도서관

광주시립사직도서관이 오는 5월 7일부터 8월말까지 4개월간 ‘내 아이를 위한 엄마 영어 독서 지도법’ 강좌를 운영한다.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사직도서관 3층 다복직실.

이번 강좌는 어린이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맞춰 부모에게 직접 체계적인 영어독서 지도법을 가르친다.

인도 출신으로 2000년 한국국적을 취득한 바수무풀씨가 지도강사로 초빙돼 영어독서 지도의 올바른 방법과 학습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선착순 20명 모집하며 자녀의 영어교육에 관심있는 엄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2-226-377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국 학생문예작품 공모

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

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회장 문병완)와 한림문학재단(이사장 박형철)이 공동으로 제4회 다형김현승시인전국학생문예작품을 공모한다.

김현승 시인은 ‘신문학’을 창간, 우리 시문학을 부흥시킨 시인으로 문덕수, 신달자, 송기숙, 문병완, 조태일, 이성부 등을 등단시켰다.

공모부문은 문운(시, 동시, 시조) 2편과

산문 각 1편이다. 광주시교육감상(3명), 전

남도교육감상(3명)이 수상되며 입상작은 공모한다.

김현승 시인은 ‘신문학’을 창간, 우리 시

문학을 부흥시킨 시인으로 문덕수, 신달자,

송기숙, 문병완, 조태일, 이성부 등을 등단시켰다.

선착순 20명 모집하며 자녀의 영어교육

에 관심있는 엄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2-226-377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대성